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8일(화) 18시 0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두 척이 함께 어구를 끄는 어법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였다. 다음날인 28일(화)에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하여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 나포 현황 >

일시 / 장소	선명	톤수	승선원	위반사항
'23.3.28(화) 18:00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km	절령어A호 (쌍타망어선)	218톤	10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허가 외 어구 미격납)
'23.3.28(화) 18:30 /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9km	절령어B호 (쌍타망어선)	218톤	9명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망목규정 위반 조업)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 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총괄>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이민영 (044-200-5571)
	남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	책임자	과 장	김석재 (064-780-2441)
		담당자	실 장	김후인 (064-780-2445)

